# [532회] 압록강은 흐른다




## 북티즌 독서토론 532회

■일 시 :8월 11일 (화) 오후 6:00
■도 서 : 압록강은 흐른다/ 이미륵 저/ 안삼환 번역/ 민음사
■주재자 : 전윤수
■장 소 : 모인빌

## 독서토론을 마치고(2026. 08.11)

김선희 회원

일엽편주(一葉片舟)

미리 온 부처님

한학에서 울리는 우주의 경지를

사촌 수암, 칠성과 드높여 읊는다

윗동네 아래 동네 깡통 불놀이

사방의 이름은 동서남북, 청 황 적 백색

병풍에 소를 탄 소년을 그린다

종이 연은 겨울을 높이 날리고

거북은 입술 주위에 맺힌 이슬만 먹을 때

달빛 비치는 샘 마당 가 복숭아 아래에서 자잘자잘

고요한 밤에 계속 째깍거리는 큰 벽시계

그 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

구름 틈으로 비춰주는 지혜와 같다

3⁕1운동 전단 승려 한 손길 머물다

독학으로 떠난 디아스포라(Diaspora)

고독을 발록발록 설핏

멍한 눈 들어 조국을 적념(寂念) 한다

*승려-높고 아름답다

**발록발록-탄력있는 물에가 저절로 오므라졌다 펴졌다 하는 모양

***적념(寂念)-조용한 마음

Revision #3
Created 16 August 2026 03:12:49 by pajuwiki
Updated 16 August 2026 03:22:21 by pajuwiki